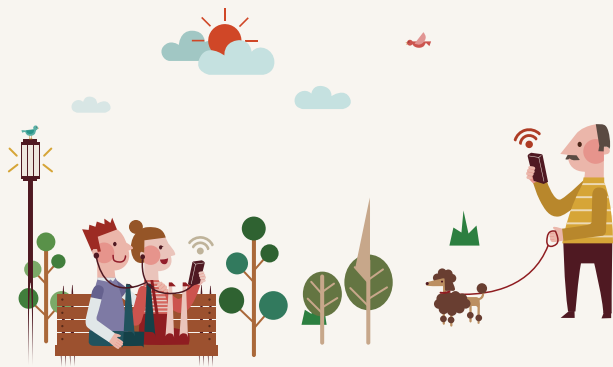




플랫폼의 진화와 새로운 뉴스 읽기

아침에는 집으로 배달되어 온 신문을 읽고 저녁에는 9시 뉴스를 보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과였다.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문을 구독하고 9시 저녁 뉴스를 시청하지만 요즘에는 뉴스를 보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 뉴스는 신문이나 방송에서만 볼 수 있었지만 인터넷으로 뉴스를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다. 독자나 시청자들은 특정 매체에만 적용되는 용어로,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이나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들을 독자라고 해야 할 지, 시청자라고 해야 할 지 애매해졌다.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제작한 뉴스를 동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게 되는 경로는 단일하고 폐쇄적인 것이었지만 뉴스 제작·배포·이용까지의 과정들이 열렸고 복잡해졌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새로운 뉴스 플랫폼에서 뉴스 읽기의 변화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이 뉴스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은 인터넷을 시작하는 대문으로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시작할 때 처음 거치게 되는 사이트이다. 인터넷 포털 웹사이트는 검색 서비스, 커뮤니티, 디렉토리 서비스 등을 같이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끌어 모으는데 뉴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하면서 포털이 보여주는 뉴스를 읽거나 '실시간 검색어' 등을 통해 뉴스를 접하게 된다. 인터넷 포털이 뉴스 플랫폼으로 활용되게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포털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뉴스는 읽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뉴스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또 다른 장소는 SNS이다. 뉴스 제작자 입장에서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열린 셈이다. 2015년에 페이스북은 뉴스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인스턴

트 아티클'을 시작했다. 기존 언론사들은 페이스북에 뉴스를 업로드하고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를 보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공급 창구로서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페이스북은 새로운 뉴스 플랫폼으로 역할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최근 우리나라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어 우리나라 기사도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게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뉴스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정 사이트들이 있다. 여러 곳의 뉴스를 한 데 모아서 제공하는 사이트나 콘텐츠를 모아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뉴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버즈피드 Buzzfeed를 들 수 있다. 버즈피드는 리스티클 Listicle을 유행시킨 것으로 유명한데 리스티클은 리스트와 아티클의 조합으로 '~하는 10가지'와 같은 유형의 기사이다. 이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는 언론사에서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뉴스와는 내용과 형식에서 다르다. 버즈피드는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내용에 주목하며 모바일로 제공하는 포맷이 일반적이라 모바일 디바이스에 맞춘 분량과 형식으로 구성된다.

뉴스는 새로운 소식이라는 뜻이지만 새로운 소식이면 무조건 뉴스라고 할 수는 없다. 뉴스 제작, 배포, 소비의 과정이 변했고 제작자와 소비자가 달라졌으며 뉴스를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하는지도 모호해졌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은 모바일 온리(Mobile Only), 네트워크 사회,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발전의 핵심 키워드들이 있어서 뉴스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변화가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사회의 더 큰 변화에서 뉴스 읽기도 계속적으로 변화할 것임은 틀림이 없다.

